

금요 양성 2025년 12월 26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.

2026년을 맞아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

“큰 수도회의 총봉사자인 보나벤투라 성인은 많은 업무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를 해 주었다. 가난한 클라라 수도회의 수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‘내려감으로써 어떻게 기도에 몰입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안했다.’

“그 단계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:

-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시오.
-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,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,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, 어떤 사람이 될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시오.
-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(천성이 어떠한지)?
- 죄로 인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?
- 노력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까?
- 은총의 힘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?
- 마음 속으로 묵상해 보시오.
- 정신의 상태에 잠겨보십시오 (분개하고 있는지, 분노하고 있는지, 질투하고 있는지?)
- 밭을 갈아 엎으시오,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작업을 해 보시오.
- 내적 자유를 위해 분투해 보시오.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해 보시오. 하느님은 절대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.
-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에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.
- 만약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으면, 자신을 초월해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.”

보나벤투라, 「자매들에게 보낸 삶의 완덕에 관하여」 (*Perfectione vitae ad sorores* , Perf. Vit.) 1.5 (VIII, 109). 영어 번역: 호세 데 빈크(Jose de Vinck), 「삶의 완덕에 관하여—자매들에게 보낸 글」, 『보나벤투라 전집』 제1권, 신비 소품집 (Mystical Opuscula) (미국 뉴저지주 패터슨: 성 안토니 길드 출판사, 1960), 214쪽.

인용되어 있는 곳: 일리아 델리오, 프란치스칸 기도 (킨들 위치 613-616). 킨들 판 (조원영 안나 번역본: 38쪽 참조)

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기도 여정을 위하여

- 가난한이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의 “책”으로
- 성 프란치스코, 성녀 글라라, 성 보나벤투라의 글을 우리의 “영감”으로
- 성령을 우리의 “인도자”로
- 마리아를 우리의 “모델”로
- 복음을 우리의 “핵심”으로
- 우리가 서약한 회개의 삶을 “중심”으로
- 성체성사, 성사와 기도를 우리의 “버팀목”으로 삼는다.

FUN 지침서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페이지 27 of 46

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

- + 당신의 기도 생활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가?
- + 당신이 재속 프란치스칸이면, 당신의 기도가 회원으로서의 당신을 어떻게 반영해 주고 있는가?
- + 기도가 당신이 사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?
- + 위에 제시된 성 보나벤투라의 영적 지도에 근거해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?